

글로벌 학습으로서의 지리학습

니시카와 교코
야스다 여자대학

I. 시작하며

학습자가 일상 경험이나 미디어를 통해 오랜 시간을 걸쳐서 형성한 잘못된 소박개념은 수업에 의해 보다 옳은 과학적 개념을 배워도 쉽게 수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인지심리학의 성과를 수업에 도입해서 논리와 심리 쌍방의 시점에서 수업을 구성하는 시도가 각 교과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원이나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서는 기르고자 하는 역량이라는 논리적 관점에서의 검토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어떤 소박개념을 과학화할 것인가라는 학습자의 심리적 시점에서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아무리 과학적 개념을 익혀도 교실을 떠난 실생활에서는 인간은 잘못된 사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합리적 판단과 직관적 판단이라는 두 가지 사고의 상호작용에 의해 사물을 인지·사고·판단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입장에 따라 통계적 과정·알고리즘·논리·지성·인지·의식 등으로 표현되며, 논리적으로 정보의 내용을 잘 음미한 뒤에 태도나 행동을 결정한다. 후자는 자동적 과정·발견·심리·감성·감정·무의식 등으로 표현되며, 신속하지만 간단한 정보처리로 태도나 행동을 결정해서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가져 오는 반면, 편견이나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합리적 판단에 의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장면에 미디어 등의 외적 유인이나 본인의 상태 등의 내적 사정에 의해 직관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정치적 여론 통제나 기업 전략에 이용당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정보화·글로벌화·인간관계의 희박화로 인해 어릴 때부터 정치적 선배나 소비자로서의 행동에 대한 의도적 조작에 영향을 받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현대사회에 무방비한 학습자에게 「인간이 빠지기 쉬운 사고의 함정이나 선입관을 자각한 다음 거기에서 벗어나서 사물을 신중하게 편견 없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각 교과에서의 창의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월드 스타디즈(World Studies)나 미디어교육에서²⁾ 견해나 과정을 의식하는 힘이나 비판적 사고력 육성을 위한 창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두 가지 사고 과정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거나, 각 교과에 도입해야 할 내용의 부분적 지적에 머무르는 등 소박개념이나 두 가지 사고 과정을 염두에 둔 단원이나 커리큘럼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선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영국의 지리교재 『Jigsaw Pieces』³⁾(이하 JP)의 내용 중 전형적인 예로서 단원 2 「영국 직소 퍼즐(jigsaw puzzle)」의 학습 활동과 학습 내용을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1> JP의 단원(필자 작성)

단원 1	생활 속의 경계선
단원 2	영국 직소 퍼즐
단원 3	자연적 경계선: 육지와 바다
단원 4	유럽 직소 퍼즐
단원 5	열대로의 여행
단원 6	가장자리에서 생활한다.
단원 7	당신의 세계는 어느 정도 넓은가?
단원 8	사람들 사이의 경계선

- (1) JP는 학습자의 어떤 소박개념을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가?
- (2) JP는 어떠한 학습배열에 의해 (1)의 소박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수정하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는가?
- (3) (1), (2)의 단원구성의 목표와 방법 원리는 무엇인가?

II. 단원 2에서 소박개념과 소박개념에 대한 의식을 촉진하는 학습 활동

1. 단원 2의 개요

JP의 각 단원에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학습자에게 교시(敎示)하는 장면이 있다. 단원 2에서는 다음 세 가지가 명시되어(필자요약) 학습자에게 본 단원에서는 「국내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관과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집단이 만들어내는 패턴⁴⁾」의 변화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고 있다.

① 국내의 다양성에 대해서 ... 영국은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관과 그 이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주 유사한 장소는 매우 드물다. 다른 국가보다도 좁은 국토에 4개의 국가와 많은 인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구분포는 경관, 기후, 자원, 과거의 역사로 인해 고르지 않다.

3) David Lambert "Jigsaw Pieces" Cambridge Geography Project, 1992.
4) 上掲書3) p.4.

1) E. B. ゼックミスタ著 宮本博幸 역 「비판적 사고」 北大路書房, 1998, p. ii. 일반적으로 이 능력은 비판적 사고력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자요나 타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사고방식이나 지식을 반성적으로 음미해서 유연하게 갱신해 가는 것을 중시한 사고력으로 본다. 뒤의 reflective thinking(반성적 사고)라고 번역되지만 성찰적·내성적 사고)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木村一子 「영국의 글로벌교육」 勁草書房, 2001, 렌·마스터·맨著, 宮崎寿子 訳 「미디어를 가르친다」 世界思想社, 2010.

② 국내의 인구유동에 대해서 ... 인구는 천천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일에 의한 급속한 인구증가 지역과 유출에 의한 인구감소 지역이 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10명중 8명이 도시부에서 생활하는 도시 인구가 많은 나라이지만 이전에는 농촌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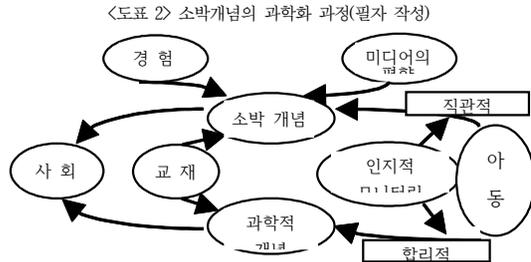
③ 국내의 변화와 생활의 질에 대해서 ... 각 지역은 항상 변화하고, 생활이나 일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큰 공장들의 폐쇄로 인한 실업 등과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변화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극히 일부에서만 볼 수 있는지, 무엇이 지역의 풍부함/빈곤함, 매력/지원의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는지, 경관 변화에 대해서 보다 많이 배운다.

④ 학습에 대해서 ... 영국의 생활이 어떻게 다양한가, 영국은 둘로 나누어진 나라인가, 왜 사람들은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라는 세 가지 의문을 주로 생각해 간다.

2. 소박개념에 대한 의식을 촉진하는 학습 활동의 필요성

소박개념의 과학화나 문제 있는 직관적 판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소박개념이나 그것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학습자 자신이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소박개념의 존재, 직관적 판단과 과학적 개념과의 모순을 의식하면 과학적 개념과 서로 대조하고 관련지어 수정해 가는 사고가 작동한다. 「그러나 실재는 학습자가 스스로 소박개념을 의식하지조차 못하거나 소박개념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⁵⁾

이것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인지적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무의식에 작용하는 인지능능이 직관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 중 어느 쪽의 사고 과정으로 정보처리를 할 것인지를 수시로 정하고, 무의식적인 직관적 판단 과정에 소박개념이 채용되기 때문이다. 심리학의 성과를 예로 들자면⁶⁾ 편견이 약한 사람이라도 소박개념에 의한 고정관념적 지식이 활성화되는 것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직관적 판단을 내려버린다고 한다.



5) 「」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빈부가 특별해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6) 吉野巖・小山道人 「『소박개념에 대한 의식』이 소박개념의 수정에 끼치는 영향-물리분야의 직락(直落) 실험과 MFC소박개념에 관해서-」 『北海道教育大学紀要(教育科学編)』第57巻 第2号, Vol.57, No.2. 2007, p.167.
 7) 唐沢樞 『사회적 인지의 심리학』 나카ニシヤ出版, 2004, p.120. 및 상계서 1) pp.1-71.

그 때, 자신이 자동적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의식하면 하나 하나 음미해서 다시 판단해보는 합리적 판단의 사고가 작동하거나, 사회규범과의 괴리로부터 생기는 불쾌감의 해소를 위해서 반편견적 판단이나 행동을 무의식 중에 취한다.

여기서 소박개념의 과학화나 직관적 판단의 문제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지능능의 강화를 위해 우선은 학습자가 소박개념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촉진하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박개념의 근거를 과학적 틀에 적절하게 위치하도록 하는 과학적 틀의 예외적인 사례(예,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삼각형을 그리게 한다)를 생각하게 한다. 그 다음 그것을 검증하도록 하는 과학적 개념의 교수에 앞서 소박개념을 활용해서 풀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보다 일상적인 체제 속에서 과학적 개념을 누리는 것 등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지고 있다.」⁷⁾

3. 소박개념에 대한 의식을 촉진하는 학습 활동

단원 2에서 소박개념에 대한 의식을 촉진하는 학습 활동을 추출하고, 어떤 소박개념을 의식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결과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소박개념에 대한 의식을 촉진하는 학습활동(『Jigsaw Pieces』에 의거 필자 작성)

소박개념에 대한 의식을 촉진하는 학습 활동	소박개념
A. 전형적인 경관 사진을 조각으로 한 영국 직소 퍼즐(jigsaw puzzle)을 보고, 각 경관으로부터 보이는 것, 받은 인상, 어느 지방의 경관인가를 학습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영국 직소 퍼즐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하나의 조각을 이루는 경관으로서 학습자의 거주지역의 전형적인 경관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 한다. →처음에 제시된 경관과 유사한지, 전혀 다른지를 서로 이야기 하고, 학습 전체에 소개한다.	A-1. 영국, 각 지방 거주지의 이미지: 아름다운 농촌, 선진적 공장, 전통적/미래도시적 거리, 풍부한 천연자원 A-2. 지역의 전형적인 경관은 영국 전체와 유사
B. 농업 종사자의 이야기와 시인의 시의 대비를 통해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 새로운 형태의 농업)의 찬반양론을 생각한다. →논점을 일람표에 정리하고, 학습 전원이 합의하는 것, 합의할 수 없는 것과 그 이유, 찬반 어느 쪽 표의 항목 수가 많은지를 이야기 한다. →자신들의 일람표를 애그리비즈니스의 농업종사자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찬성파의 논의를 더 추가하기를 바	B-1. 농촌의 이미지: 좋은 곳, 목가적이고 고풍적인 향수의 대상 B-2. 애그리비즈니스는 자연 파괴 B-3. 논쟁 B-4. 대량생산이 필요 B-5. 빈곤은 지형이 원인

8) 同上書, p.168. 이것들은 의적 모니터링을 통과한 메타 인지적 자원이라고 한다.

<p>란다고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논의를 추가한다.</p> <p>→에그리비즈니스에 성공한 지역과 그것이 곤란한 지역을 각 농업 종사자의 이야기나 토지 이용표 등을 활용해서 비교하고, 차이점을 살펴본 다음 포스터를 만든다.</p>	
<p>C. 북부에 대한 멘탈 맵(심상지도)을 보고, 정확하지 어떤지를 생각한다.</p> <p>→멘탈 맵과 지도를 비교해서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 왜 틀렸는지를 생각한다.</p> <p>→거주지의 멘탈 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왜 다른지를 생각하는 인상을 나타내는 득점 용지(조용함, 더러움 등의 정도를 1~5점)에 점수화한다.</p> <p>→타 지역보다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에는 좋은 점, 나쁜 점 양쪽이 있는지를 생각한다.</p>	<p>C-1. 영국 북부나 거주지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 이 장소는 비위생적이고 나쁘다.</p> <p>C-2. 실체는 모르지만 저 지역은 자연이 풍부하고 좋다.</p>
<p>D. 최초로 제시된 경관사진으로부터 하나를 선정, 득점 용지에 인상을 평가하고, 그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문장화 한다.</p> <p>→옆 사람과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거주지와 닮은 점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지 이야기 한다.</p> <p>→사진을 봄으로써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는지, 그 외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그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p>	<p>D. 사진이나 경관으로부터 지역을 안다</p>
<p>E. 유럽 공동체의 평균을 100으로 해서 자동차 소유자 수, 실업자 수, 평균 임금의 비율로 지역의 빈부를 나타낸 표를 사용해서 영국을 색깔로 구분하고 가장 가난한 지방, 풍요로운 지방을 찾는다.(지도에서는 풍요로운은 구역 내의 평균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보다 가난하거나 풍요로운 지역이 있지만 그 다양성은 배제되어 있다. 지도는 남동지방을 제외하고 영국은 유럽 내에서는 별로 풍요롭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p> <p>→거주지는 어느 지방인지, 타 지역과 비교해서 빈부의 정도는 어떠한지, 이 지도의 결과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p>	<p>E-1. 자동차 소유, 임금, 실업률이 풍요로운 지표. 그것이 낮은 지역은 가난하다.</p> <p>E-2. 타 지역보다는 풍요롭다.</p> <p>E-3. 통계 지도로부터 지역을 안다</p>
<p>F. E의 지도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영국이 정말로 북부와 남부에서 빈부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른 조사로 확인한다. 집, 건강, 일 등 좋은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통계 지도와 실업률과 이주를 나타내는 통계 지도를 비교해서 유출자가 많은 지역과 실업률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유출이 많은 지역의 사람이 어디로, 왜 이동하는지</p>	<p>F-1. E 외에 냉장고나 전화 등의 소유물로 생활의 질을 측정해서 그것이 낮은 지역은 가난하다.</p> <p>F-2. 다른 지표를 이용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남동부가 풍요롭다.</p>

<p>를 생각한다.</p> <p>→생활의 질을 판단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소유율을 나타내는 통계를 읽고, 대부분의 가정이 소유하는 물건, 소유하지 않고 있는 물건을 4개씩 든다.</p> <p>→가장 소유율이 적은 지역은 어디인가?</p> <p>→지역의 생활양식의 장점에 관한 정보는 이 외에 무엇이 있는가?</p>	
<p>G. 모둠으로 나뉘어 자기 지역의 신문기사 「정말로 영국에는 격차가 있는가?」를 쓴다.</p> <p>→지도나 표제나 생활의 질, 실업률, 이주자에 관한 BG의 학습 자료를 모듬된 모두가 읽고 영국의 격차에 대해서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한다.(중요한 요인으로서 무엇이 제시되고 있는지,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정보는 있는지, 영국에 정말로 격차가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p> <p>→두 사람의 모듬에서 남북 격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람표에 제시한다. 격차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없는지, 없다면 현상의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메모해 두자.</p> <p>→신문기사를 쓰는 계획을 세우고, 네 개의 작업을 분담한다. 자신이 분담한 것을 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p> <p>→신문기사를 읽고 풍요로운 것으로 생각되는 남동부에서의 열악한 생활 상황을 안다.</p>	<p>G-1. 소유물, 임금, 주거, 건강이 생활의 질을 결정해서 가난한 지역은 그것이 낮다.</p> <p>G-2. 영국은 남북격차가 있다.</p> <p>G-3. 소유물 등이 영국의 남북격차의 증거가 된다.</p>
<p>H. 휴일에 북부로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 조사를 읽고,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를 선택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고, 어느 지역을 피하고 싶은가?</p> <p>→선택한 곳의 장단점을 거리나 오락시설 등의 관점에서 쓴다.</p> <p>→세컨드하우스 거주자가 초래하는 변화를 그 지역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한 변화를 다섯 가지 들고 이유를 생각한다.</p> <p>→의식 조사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내고, 세컨드하우스가 좋은지 어떤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는 문장을 쓴다.</p> <p>→주민의 인터뷰에서 세컨드하우스의 장단점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안다.</p>	<p>H-1. 사람들은 높은 임금이나 직장을 찾아서 남부로 이동한다.</p> <p>H-2. 자연이 풍부한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p>
<p>I. 풍자화(출퇴근 시간의 철도에 모두 같은 복장·표정으로 타고 있는 모습)를 보고 장거리 출퇴근자의 생활에 대해서 어떤</p>	<p>I. 자연이 풍부하고 전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북부에 살고 싶지만, 실업률이</p>

생각을 전하고 있는지를 읽어낸다. →북서부로 이주해 남동부로 출퇴근하는 부모가 있는 중학생의 편지를 읽고, 자신이 이주한 적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중학생과 같은 것을 생각했는지, 이동 거리는 자신의 느낌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한다.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하는 사람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기대해서 이동하는 것일지 목록에 나타낸다.	낮은 고임금 지역에서 일하고 싶다.
--	---------------------

Ⅲ. 개념을 창출하는 변형적 의미에 의한 글로벌 정상형(定常型) 사회의 탐구

1. 학습자에게 의식하게 할 소박개념의 특징

학습자에게 의식하게 할 소박개념의 특징을 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면⁹⁾, 다음 다섯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다음의 영숫자는 <표 3>의 소박개념의 영숫자에 대응한다.)

- ① 경관에 관한 소박개념(구조적 부재) … A-2, B-1, H-2
- ② 생활의 질에 관한 소박개념(경제지상주의) … B-4, E-1, F-1, G-1, H-1, I
- ③ 학습에 관한 소박개념(이원론적 사고) … B-3, C-2, D, E-3, F-2, G-2, G-3
- ④ 공간에 관한 소박개념(일원론적·기계론적 세계관) … A-1, B-4, C-1, G-2
- ⑤ 타자·타 지역에 관한 소박개념(자문화중심주의) … B-2, E-2

가. 경관에 관한 소박개념~구조적 부재의 개념~

C의 활동에 앞서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교시(敎示)가 있다. 「영국의 북부, 남부, 서부, 동부에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왜 자신들과 그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은 (학습자가 사는)지역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물음에 정답은 없다. 사람들의 답변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경험, 성격에 의존한다.10) 이것은 「이미지의 지리학11)」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모든 경관은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사고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도 구성되며 …중략… 흔히 널리 합리화되어 있지 않다. …중략… 우리들이 자기 자신에게 현상을 신속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소박한 이미지다.12)」 그 대부분은 미디어에 의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져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포함한다.

광고나 드라마 등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농촌 이미지는 낭만주의적이어서 「좋은 곳, 방문하고 싶은 곳, 이상적인 장소이며, 애착이 가는 향수의 대상이며, 순수해서 목가적인 가치, 고풍적인 풍습, 전통공예 및 밀밭에는 영국적인 안정과 질서의 보고(寶庫)이다 … 중략… 농촌의 초상(肖像)에서 막무가내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농촌의 빈곤, 착취, 실업 및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의 문제 …중략… 완전히 목가적인 농업종사자들의 생활을 신화와 같이 믿는 것은 그들이 임금, 취업 및 생활 조건을 개선할 기회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중략… 지리학 교과서 이미지와 텍스트 바로 그것이 자주 그러한 신화를 영속시키고 있다.13)」 실제로 농촌의 빈곤, 실업을 지적하는 교과서에서도 지형 등 그 지역 고유의 장애가 원인으로 경제적, 기술적 변화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고, 기업이나 행정에 서의 좋지 않은 착취나 경제 우선에 의한 폐해는 다루지 않는다. 영국 미디어 교육연구자 렌마스탄은 이 사제를 「구조적 부재」라고 부르면서 탐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¹⁴⁾.

학습 활동A, B는, 학습자에게 전술한 바와 같은 농촌 경관에 관한 구조적 부재의 소박개념(여기서는 낭만주의적·자본주의적 경관15))을 의식하게 한 다음, 다른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구조적 부재 부분(빈곤, 착취의 구조 등)에 관한 학습을 전개하고 있다. H는 농촌 경관의 변화인 세컨드하우스의 증가를 좋다고 느끼는 낭만주의적, 자본주의적인 소박개념을 의식하도록 해서 임대료나 연간 몇 주간 체류 중의 미미한 소비 대신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상승, 공공기관 등의 인프라 쇠퇴, 커뮤니티의 해체 등을 초래하는 착취의 구조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는 다른 교과서가 다루지 않는 구조적 부재의 부분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지리교과서 조사에 의하면¹⁶⁾, 1980년대의 교과서는 모두 미디어와 동일한 구조적 부재를 드러내고, 예를 들면 자민족중심주의적·인종차별주의적 소박개념(아프리카의 빈곤 원인이 고유한 장애에 있으며 경제적·기술적 변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등)이나, 상업주의적 소박개념(초고층 빌딩과 장대한 경관 등의 관광지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미지를 그대로 용인하는 학습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에 비해서 JP의 단원 1과 8은 학습자가 가지는 이 소박개념을 의식하게 한 다음 구조적 부재 부분인 영국의 계곡주의적 과거,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의 구조, 아파트레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과 생활, 그들의 거주 지역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JP는 이러한 교과서를 개선·발전시킨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나. 생활의 질에 관한 소박개념~경제지상주의~

E-1, F-1, G-1은 경제성장을 최우선하는 경제지상주의의 소박개념이다. 평소 이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는 학습자는 소유물 등의 물질적인 척도(GNP 등)로 생활의 질을 이야기하는 통계자료를 위화감 없이 이해해 버린다. 이 개념은 중심부의 공업화나 경제성장을 위해서 주변부가 지배되어 수탈되는 글로벌 시장 경제를 확립하고¹⁷⁾, 「빈곤이나 격차, 실업이나 배제, 그리고 환경 파괴나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18)」를 만들어 내

13) 상계서 2) 렌마스탄, p.306-308. 영국지리에 빈번하게 이용되는 교재를 조사하고 있다.

14) 상계서 2) 렌마스탄이 그의 저서에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

15) 상계서 2) p.304. 메이니그는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빈번하게 이용된다고 해서 자연으로서의 경관(낭만주의), 거주지로서의 경관(환경주의), 인위적인 경관(기술주의), 부(富)로서의 경관(자본주의)등을 들고 있다.

16) 상계서 2) p.309-311. D. 렉스나 D. 라이트가 각각 조사하고 있다.

17) 湯本浩之 「대안적인 경제와 개발교육」 「개발 교육」 편집위원회 『개발 교육』 明石서점, 제57호, 2010, pp.14-15, 2010.

9) 주로 상계서 1), 2) 【렌마스탄】, 【맷태오】·【롯데루소니】 「세계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다」 紀伊国屋 서점, 2009를 참고로 했다.

10) 상계서 3) p.31

11) 상계서 2) 렌마스탄, p.305.

12) 상계서 2) 렌마스탄, p.304-305.

고, 세대간·세대내 불공정을 확대해 왔다.

1960년대 이후, 이 경제지상주의로부터의 전환이 경제학이나 World Studies¹⁸⁾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뛰어난 문화를 전개하고,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어 왔다²⁰⁾.

H-1에서는 전통이나 자연을 배려하고, 건강이나 교육, 문화의 다양성, 생활수준이나 밸런스를 위해 농촌에 세컨드하우스를 만들어 도시에서 이동·이주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이 되므로 농촌 사람에게 매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간 몇 주간 저렴한 체류 스타일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초래해서 현지 주민이 자신의 마을에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을 낳고, 가게는 망하고, 대중교통기관인 버스도 없어진다. 정부는 관광객을 위해서 많은 돈을 소비해서 버스나 의료 등 특히 고령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²¹⁾」라는 중심부의 인간이 주변부를 손쉽게 수탈하고 있는 경제지상주의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음을 의식하게 한다.

I에서는 힘들어 인간적인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주했음에도 취직 기회가 많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풍자화가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인간성 부재의 생활을 보내버린다는 경제지상주의의 악순환에 자신들이 빠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B에서는 농촌의 빈곤, 착취로 연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의 공업화(대량생산)에 의해 값싸게 식자재나 가공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현상을 좋다고 하는 경제지상주의를 의식하게 한다.

이러한 경제지상주의의 소비개념을 의식하게 하는 학습은 다른 단원에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원 4에서는 단원 2의 영국의 격차에 관한 학습과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이탈리아의 생활의 질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로부터 풍요로움을 판단하는 장면이 준비되고, 단원 7에서는 인도 관광이나 상아 밀수를 소재로 경제주의적 관광의 공죄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학습에 관한 소비개념~이원론적 사고~

B-3에는 애그리비즈니스의 찬반양론의 논점을 일람표로 정리하고, 찬반 어느 논점의 항목수가 많은지, 어느 논점에 대해서 학습의 전원이 찬성/불찬성인지를 이야기하는 학습활동이 있다. 학습자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찬반양론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 이상의 검토는 필요 없다고 느낄 것이다. 심리학의 성과에 의하면, 사람은 「읽고 있는 것이나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가정해 …중략… 특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상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²²⁾」 따라서 「틀린다는가 모순이 있다는 경고²³⁾」를 발문이나 자료를 통해 외적으로 가져오든지, 학습자의 인지적 모니터링을 통해 정말로 이대로 직관적 판단에 맡겨서 다시 검토하지 않아도 좋을까라고 스스로 묻고 답하는

18) 상계서 18) p.17

19) 상계서 2) 木村一子, p.190. 경제지상주의에 관한 수업이 월드 스타디즈에서 개발되어 있다.

20) 상계서 18) pp.13-17.

21) 상계서 3) p.41.

22) 상계서 1) pp.29-30. 디홀드 가정이라고 불린다.

23) 상계서 1) p.29. 「세계는 감정으로 움직이고 있다」의 저자는 PC화면의 「첨부파일과 어구가 있는데 이메일에는 첨부파일이 붙어 있지 않지만 좋은가」 등과 같이 주의를 환기하는 기능 「넛지」에 비해 인지적 모니터링에 직관적 판단에 유도되고 있지만 좋은가, 등과 같이 경고할 수 있는 「넛지」를 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빠지기 쉬운 사고나 사고의 유도에 대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내적 인지기능의 활동을 강화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1)의 낭만주의적·환경주의적 소비개념에 의해 애그리비즈니스 부정론의 항목이 많은 일람표를 애그리비즈니스 찬성자인 농업종사자에게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고 묻고, 충분히 논의했다는 소비개념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C에서는 지역에 관한 멘탈 맵을 형성한 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장점·단점 양 측면에 대한 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이해가 불충분한데도 일단 그 지역의 장점을 인상으로 판단하면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여기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도록 한다. D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나 사진이 필연적으로 선별적으로 어떠한 시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지역이나 비슷한 지역을 가볼 수 없는 지역일수록 그것들의 시각적 이미지에 의지해서 지역을 이해하고,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바른 이해라고 생각해보려는²⁴⁾ 학습의 소비개념을 의식하도록 하고 있다.

좋다고 생각해도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사진만으로는 그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정보를 처리해서 일반적인 이해로 알았다고 여기고 마는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상대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이원론적 사고로 현상을 파악하기 때문이다²⁵⁾. 전자는 A는 이렇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식은 일의적이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전후의 문맥에 의해 변한다는 관점이다. 후자는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고 지식은 일의적이고 절대적인 사실로 보는 관점이다. 단원 2은 이원론적 사고에 빠진 자신의 소비개념을 의식하게 해서 「배운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다른 사고방식은 없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라고 상대주의적 사고로 파악하는 기회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E-3, F-2, G-2, G-3은 생활의 질을 기준으로 바꾸어서 검토하지만 항상 남동부가 풍요롭다는 결론이 나므로, 반대의 측면을 보도록 지시해도 그 이상 생각을 심화시킬 수 없다. E-3에서는 이원론적 사고로부터 상대주의적 사고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교사가 있다. 「통계지도와 같은 것은 지역의 지극히 일반적인 이해를 제공해 주지만 그 수치는 평균치에 근거한다. 런던이 풍요로운 지역이라고 한 마디로 말해도 가장 풍요로운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지도가 나타내는 것 보다 풍요로운(가난한) 지역을 볼 수 있다.²⁶⁾」

JP는 모든 단원의 서두에서 이원론적 학습의 소비개념에 대해 의식하도록 하고 있다. 단원 2의 경우, A의 학습이 이것에 해당한다. 그 지역의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하는 경관이 영국의 전형적 경관과 아주 유사하며, 영국은 이런 나라라고 이원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에 같은 지역은 거의 없다는 다양성에 대해 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이 가지는 소비개념의 불충분함을 의식하도록 하고 있다.

라. 공간에 관한 소비개념~일원론적·기계론적 세계관~

지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 공간이 여러 개 차곡차곡 겹쳐져서 구성되어, 그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지방 가운데 한 도시임과 동시에 나라나 대륙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의 공간은 중층적이고, 크고 작은 다양한 공간이 서로 작용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단원 1의 주된 학습 내용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A-1에서는 영국이 전형적인 경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C-1은 자신의 공간에 대

24) 상계서 2) 랜마스탄 pp.302-304.

25) 상계서 1) pp.33-41. 절대적 사고, 조건적 사고와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다.

26) 상계서 3) p.37.

한 평가를 절대시 하고, G-2에서는 다양한 지역이나 사람이나 관점이 중층적으로 겹쳐지는 모양을 무시해서 남북격차가 있다고 보는 등 학습자는 자신의 일원론적인 소박개념을 의식하도록 되어 있다.

B-4는 농촌의 빈곤이 그 지역 특유의 지형이나 위치 등의 입지조건에 기인하고, 토지 이용 등의 기술적 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계론적 세계관²⁸⁾(문제·해결, 원인·결과와 직선적인 관계로 문제를 보는 관점)에 의한 소박개념이다. 그 후의 애그리비즈니스 성공자와 그것이 곤란한 농가와의 비교 학습에서 문제의 주원인이 지역이나 애그리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신들의 대량생산·가격 파괴를 추구하는 생활 스타일에서 있다고 유기론적 세계관(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서로 얽혀 결과는 원인도 될 수 있는 시스템적 관점)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처음으로 의식하게 된다.

마. 타인·타 지역에 관한 소박개념~자문화중심주의~

사람은 자문화중심주의적으로 타인이나 타 지역을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²⁹⁾. 예를 들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자신(들)에게는 상황 등 외적요인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적 등 내적요인을 이유라고 생각해서 엄격해진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어도 책임을 회피하는 해석을 해 버린다. 또한, 자신(들)은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B에서는 애그리비즈니스에 의한 자연파괴나 음식의 안전성 저하를 문제시해서 농업종사자에게 비판적인 감정이 나타나고, 애그리비즈니스 반대론이 전개된다. 그러나 농업종사자의 입장에 자신이 서게 되면, 외적요인으로서 대량생산에 의한 저렴한 식자재의 수요, 착취의 구조라는 수직자인 자신들의 생활에 기인하는 이유를 의식한다.

JP에는 이러한 자문화중심주의적 소박개념을 의식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 적지 않다. 단원 1에서는 북미에서 볼 수 있는 백인 미국인의 원주민에 대한 부당한 취급을 고발하는 포스터를 그린 후, 그 포스터를 본 미국인으로부터 편지를 쓰게 한 다음 같은 대답에 관한 기사를 수집해서 관련된 국가·지역·사람을 고찰하는 학습 활동이 있다. 처음에는 상당히 엄격한 비판을 미국인에게 맞닥뜨리게 한다고 생각되지만, 식민지주의나 제국주의에 의한 자국의 역사나 정책, 경제가 원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해력으로 인한 생활이나 계속되는 대답을 되돌아보게 한다.

2. 목표원리 : 글로벌 정상형 사회의 탐구

일본의 지리교과서에서 국내인구에 대한 학습을 보면³⁰⁾ 전술한 소박개념을 의식하게 하는 기술은 없었다. JP는 왜 자국이해를 하는 단원에서 전술한 소박개념을 의식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G에서 소박개념으로서 경제지상주의의 존재를 의식하게 한 다음 H에서 세컨드하우스의 소재지는 어디가 좋을지를 생각하고, 그 지역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I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중심부로 이동하고, 주변부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일람표에 나타내도록 한다. 오락시설, 거리, 직업이나 수입의 안정, 취미나

가족과 보내는 시간, 풍요로운 자연 등이 제시되어 학습자 나름대로 자신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탐구하게 된다. 이것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개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최저의 생활 보장의 기준인 『글로벌·미니멈』³¹⁾」의 탐구와 같다.

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영국의 사람들은 휴일을 세컨드하우스에서 보내는 교외에 살면서 중심부로 출퇴근하거나, 중심부에 살면서 주말만 교외로 귀가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행동을 취하지만 경제지상주의만으로는 어느 행동도 기준의 반밖에 충족되지 않는다. H의 풍자화는 이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중심부에서도 주변부에서도 풍부한 경제생활과 풍요로운 인간적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과소(過疎)나 인구동향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 경제의 주체자로서 시스템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경제지상주의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경제와 생활의 질을 양립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행동³²⁾에 대한 사고가 시작된다. 이 반성적 성찰과 행동은 비판적 사고의 두 측면이다³³⁾.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란 다른 사람이나 정보의 부족이나 편중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사고를 성찰하는 것이 중시되고, 믿음만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생산적인 사고를 목표로 하는 것³⁴⁾」이다.

그렇다면 학습자는 여기서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가? 그것은 글로벌·미니멈인 탐구 활동이나 농촌·농업이나 세컨드하우스에 관한 학습 내용 (I) (2)에서 기술)으로 부터 「글로벌 정상형 사회³⁵⁾」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부의 편재나 빈부의 격차를 남기지 않고, 개인의 생활 보장이 구성구석까지 미치고, 경제의 확대/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장기간에 걸쳐 존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복지 국가·복지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사회³⁶⁾」이다. 양적 확대보다도 질적 변화에 주된 가치가 두어져, 「경제와 같이 변화가 빠른 것이 아니라 자연, 커뮤니티, 전통 행사, 예술과 같이 변화가 늦은 것³⁷⁾」에도 가치를 두는 사회다.

JP는 이러한 사회의 탐구를 목표원리로 단원이 구성되고, 그 때문에 부의 편재나 빈부의 격차의 이해를 방해하는 구조적 부재와 이원론적 사고, 글로벌 차원의 폐쇄나 문제(세계 각지의 빈곤이나 대답이나 편견)를 만들어 온 경제지상주의, 일원적·기계론적 세계관, 자문화중심주의와 같은 다섯 개의 소박개념을 학습자에게 의식하게 해서 그 과학화와 그것에 의한 직관적 판단의 문제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지기능 강화를 지향했다고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단원 2는 국가, 단원 4는 대륙, 단원 7은 세계 수준에서 이 사회를 탐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1) 상계서 18) p. 25.

32) 상계서 18) p. 25. 예컨대, 글로벌 시장 경제를 용인하면서 폐쇄나 문제에 대한 국제연대세(國際連帶稅) 등으로 부를 재배분하는 글로벌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풍토의 다양성을 소중히 하면서 농업적 자급 사회를 구성한다.

33) 상계서 1) pp.241-245.

34) 상계서 1) p.ii

35) 상계서 18) p.25.

36) 상계서 18) p.25.

37) 상계서 18) p.25.

27) 상계서 3) p.3.

28) Pike, G & D. Selby, "Global Teacher, Global Learner", H&S, 1989, p. 29.

29) 상계서 10) pp.165-285. 집단 편견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자문화중심주의라고 일괄적으로 본다.

30) 五味文彦 「새로운 사회 지리」東京書籍, 2005.

3. 방법원리 : 반성적 음미에 의한 개념창출

5개의 소박개념 가운데, 물질적 척도만으로 필요로움을 판단하는 경제지상주의적 소박개념의 반성적 성찰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반성적 음미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경제지상주의의 소박개념의 음미 → ② 새로운 개념의 발견·경제지상주의에 대한 의식과 신뢰도의 저하 → ③ 새로운 개념의 탐구 → ④ 두 개념의 갈등 → ⑤ 새로운 개념의 강화 → ⑥ 두 개념의 균형화 → ⑦ 둘을 내포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출

① 경제지상주의적 소박개념의 음미 … E의 지도가 나타내는 필요로움에 찬동할 것인지를 논의할 때 학습자는 자신의 실제 체험에 맞지 않고 찬동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자동차를 적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접근성이 좋지 때문일 수도 있고, 임금이 낮아도 물가가 싸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지도 모른다 라고 지도가 나타내는 기준에 대한 의식과 필요로움의 기준이 탐구된다. F에서는 냉장고 등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 필요로움을 다시 음미한다. 그 때, 이 외에 지역의 생활의 장점을 나타내는 정보는 없는지를 질문을 통해 필요로움의 기준이 탐구된다. G에서는 EF에서 본 자료를 분석하는 것 외에,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는지를 생각해 필요로움의 기준이 탐구된다. 여기까지 자신의 필요로움의 판단 기준을 다시 보는 기회가 세 번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적 척도라고 하는 경제성장 최우선의 관점에서 필요로움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세 번의 검토를 거쳐서 강고한 소박개념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져 갈 것이다.

② 새로운 개념의 발견·경제지상주의에 대한 의식과 신뢰도의 저하 … G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필요로움을 판단하는 자료가 제시되어, 자신에게 있어서의 필요로움의 기준이 재검토된다.

③ 새로운 개념의 탐구 … H에서는 직장을 찾아서 중심부로 이동하는 경제지상주의의 행동을 지금까지의 학습에서 의심하지도 않았지만 물질적이지 않은 필요로움을 찾는 이동에 대해서 알고, 경제 이외의 필요로움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한다. 세컨드하우스를 선택한다면 어떤 곳이 좋을지, 그 지역의 장단점을 제시하는 가운데 문화적·인간적 필요로움의 기준을 탐구하고 있다.

④ 두 개념의 갈등 … I에서는 교외로의 이주로 경제적·인간적 풍부함의 양쪽을 누리고 싶은데, 출퇴근의 장거리화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시간의 단축으로 인간적 필요로움이 훼손된다는 E~G, GH 각각에서 탐구한 개념이 경쟁해서 양립할 수 없는 갈등을 체험한다.

⑤ 새로운 개념의 강화 … 이동 거리가 자신의 느끼는 방식에 차이를 낳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래도 경제적 풍부함을 우선해서 중심부로 되돌아오는 것 보다는 인간적 필요로움을 우선시키고 싶으면 경제성장의 우선순위를 내려 인간적 필요로움의 추구를 강화한다.

⑦ 둘을 내포하는 새로운 개념의 창출 … 경제적 풍부함을 추구해서 이동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잃어

버릴지를 목록으로 만드는 가운데 둘의 필요로움은 어느 쪽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둘을 양립시키는 포괄적 개념(글로벌 정상형 사회)을 창출하기 시작한다.

JP는 소박개념을 극복해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반성적 음미(직관적 판단과 합리적 판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4. 이념: 냉정한 두뇌뿐만 아니라, 따뜻한 심정을 가진 글로벌 인재육성

왜, JP는 이러한 목표원리, 방법원리에 따라 단원 2를 구성한 것일까? JP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개발되었다. 이 대학에는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마셜이 남긴 「cool heads but warm hearts」(냉정한 두뇌뿐만 아니라 따뜻한 심정)라는 말이 있다. 알프레드가 취임시의 공개 강의에서 「주위의 사회적 고난에 대응하기 위해 냉정한 두뇌를 가지고, 그러나 따뜻한 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는 사람이 케임브리지에서 배우는 학생들 속에서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제 뜻이다³⁸⁾」라고 말해, 스스로도 이론적 발전을 빈곤문제의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케임브리지 학파를 구축했다. 시민성론으로 유명한 T. H. 마셜도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 알프레드와 JP의 편자는 직접 면식이 없지만, 모든 단원에서 빈곤문제를 다루고, 반성적 음미에 의한 개념창출을 꾀해서 빈곤문제를 극복하는 글로벌 정상형 사회를 구상할 수 있는 냉정한 두뇌를 육성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V. 마치면서

본 연구에서는 「냉정한 두뇌」로 빈곤을 비롯해 여러 가지 폐해나 문제를 낳아 온 소박개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는 반성적 음미를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라는 이념의 지리적 학습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개념을 창출하는 반성적 음미를 방법원리와 글로벌 정상형 사회의 탐구라고 하는 목표원리에 의해 이념 실현을 추구하는 단원구성의 바람직한 모습을 규명하였다.

현재, 글로벌 시장 경제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화폐적 가치로는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공동 자본인 의료, 간병, 교육, 환경이나 자연에너지와 같은 분야가 새로운 상업상의 기회로서 경제지상주의의 파도에 휩쓸리려고 하고 있다. 포클랜드 전쟁을 만들어 낼 것 같은 미디어에 의한 여론통제나 소비 행동의 유도가 문제시 되면서 점점 교묘하게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유도하는 정보가 글로벌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지식이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빈곤이나 환경 파괴 등의 문제가 산적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JP가 제기하는 5개의 소박개념에 착목한 개념창출과 글로벌 정상형 사회의 탐구를 원리로 하는 교재개발과 실천이 급선무일 것이다.

38) 林敏彦 「マージナル「경제학 원리」」 日経新聞朝刊, 2007. 3. 27.

일본의 교과서를 분석하면 인구분포의 편중을 직장의 많음이나 지형 등의 지역 고유의 지리적 요인에서 찾아 공공 서비스의 저하 등 과소(過疎)의 문제점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 파괴나 과소(過疎) 등의 폐해나 문제를 낳아 온 글로벌 시장 경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고, 경제지상주의를 의식하게 하는 기술(記述)도 없다. 학습자는 학습 대상의 과소(過疎)나 인구동향을 외측에서 관찰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서 파악한다. 관광 산업화나 산촌 유희,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들에 의해 인구적, 생태적으로 과소(過疎)지역이 지속가능해졌다고 해도 세컨드하우스 부분에서 말한 것 같이 (DH-1) 부의 편재는 남는다³⁹⁾. 개개인의 생활의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직한 지구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공정한 『분배』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⁴⁰⁾. 구조적 부재 등 5개의 소박개념을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한건 아닐까?

JP의 다른 단원에는 방재 등 본 연구에서 검토한 5개 이외의 소박개념을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전체상이나 의사결정 등과 같은 단원의 방법원리, 소박개념의 옹호 부분의 활용 방법원리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었다. 또, 단원의 구성론은 밝혀졌지만 학습문제나 발문과 같은 학습 방법론의 규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수업 모델을 구축해서 실증적으로 규명하거나, 알프레드·마살과의 관련 등 JP작성의 배경이나 JP편저자의 논문에 대한 검증도 충실히 하고 싶다.

39) 상계서 18) p.25.

40) 상계서 18) pp.24-26.